

東文選의 樓亭記에서 본 高麗 中·後期の 樓亭建築考

李容範

(동신전문대학 건축학과 조교수)

千得琰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林永培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序

우리의 傳統建築이 그 時代人의 정신사상적 기반의 표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한 사상적 기반 아래 그 생활인의情緒가 조성되어 궁극적으로는 그 사상과 염원의最高善(理想郷, utopian idea)을 표현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建築인 것이다. 이 관점은 집이란 들어가서 사는 기계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神들의 模範의 創造를 模倣함으로써 그 자신을 위해 건설한 宇宙라고 말한 엘리아데의 宗教的 觀點¹⁾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또 그 정서의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그 건축의 존재가치를 인식한 그 시대인²⁾은 비록 匠人은 아니더라도 그 시대의 計劃家³⁾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傳統이 한 시대의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행태와 생활을 지배하는 특유의 법칙과 원리, 이념에 의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그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보고 그 시대인의 욕구와 그 표현을 이해한다면, 그 시대의 건축을 보는 관점은 그 시대인의 思想과 價値觀, 建築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통건축을 생각할 때 그 대표적인 건축대상 중 하나가 우리의 樓亭建築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찰은 歷史性에 입각한 문헌적 고찰로서 누정건축의 올바른 正體性을 파악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대적 고찰⁵⁾에 의한 첫 단계로 고려시대의 누정건축을 대상

1) 멀치아 엘리아데, 李東夏譯, 「聖과 俗-宗教의 本質」, 學民社, 1983

2) 建築主나 건축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집단계층(상류층, 지식층:user)을 말한다.

3) 明나라 末葉의 造國家인 計成은 「園治, 興造論」에서 「建築은 3할은 匠人, 7할은 主人이다」라고 말하는데

주인이란 건축을 계획하려는 의지 내지는 계획관을 가진 建築主라 하겠다. 計成, 「園治」, 藝耕, 1993, 41쪽

4) 樓亭이란 樓閣과 亭子의 漢字合成語로서 朝鮮時代의 「新增東國輿地勝覽, 樓亭條」를 보면 -樓, -亭, -堂, -臺, -閣, -軒, -齋, -精舍등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5) 누정건축의 시대 분류는 尹張燮氏의 시대구분 분류방

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 누정건축에 대한 그 시대인의 사상이 건축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인식하였기에 오늘 날까지 누정건축이 면면이 이어져 오게 하였는가를 이제까지 문학적 가치로만 인식되었던 『東文選』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이 文集은 朝鮮 成宗 9년(1478년) 12월에 徐居正 및 梁誠之 등 23인의 纂集官이 撰集한 正編과 申用溉 등이 撰集한 中宗 13년(1518년)의 續編을 合本한 것으로 총 23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三國時代의 後半期부터 統一新羅 및 高麗를 거쳐 朝鮮의 中宗의 初頃に 이르기까지의 우수한 글을 文體의 類型別⁶⁾로 선집한 것인데 「記」안에 누정기가 포함되어 있다. 기문은 총 304문이 있으며 이중 누정기는 총 87문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대상은 이 누정건축의 기문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高麗 中期부터 시대인 즉 작가의 정신사상적 배경이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로서 크게 변화여지는 朝鮮時代 以前까지 즉 高麗 中·後期の 누정건축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조선시대의 누정은 제외하여 다음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먼저 누정의 기문을 작자별로,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그들이 누정에 대해 어떠한 精神思想과 樓亭觀을 갖고 있는가 분석한다. 또 自然과의 合一을 最高善으로 생각하여 그를 실천하려고 한 그 시대인 특히 儒學者나 佛道者등 지식층의 누정건축을 보는 空間的 認識의 觀點과 누정이라는 場所에서 보는 自然과의 交流對象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經驗的 自我(self)라는 필터(filter)를 통하여 어떤 구체적인 心像(images)⁷⁾으로 형성되는가 알아본다. 또 거기에 는 어떠한 建築計劃的 要素가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計劃觀은 어떻게 누정건축에 나타나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2. 樓亭記에 나타난 精神思想과 樓亭觀

高麗時代 知識層의 精神思想은 종교적으로 볼 때 정치이념은 儒敎이며 정신세계는 佛敎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宋, 元나라와의 교류로 많은 留學者들에 의해 性理學등의 유학이 도입되고 또 그들의 득세로 인해 성리학이 새로운 정신사상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老莊思想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道敎는 중국에서와 같이 활발한 대중종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原初的인 民間信仰(自然的 宗教)과 융합되었기 때문에 유교나 불교같이 대중적인 종교로서의 위치는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지식층과 서민층 모두에는 仙靈(神仙)과 三界⁸⁾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信仰的 神仙思想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삼국시대 이래로 누정건축과 함께 문헌에 나타나는데⁹⁾ 이는 누정건축의 건립에 미친 정신적 사상과 잠재적인 정서가 우리의 민간신앙인 神仙思想에 유교와 불교가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누정건축과 자연을 생각하는 그들 역시 그러한 自然觀 내지는 信仰觀을 바탕으로 건축되어 졌으리라 여겨진다. 또 高麗 中期 때 귀족문벌과 무신정권의 등장등의 사회적 현실에서 隱遁, 逃避의 實存主義的 價值觀이 神仙思想으로 연결되어 유교나 불교를 초월하여 지식층들 사이에 형성된 것도 이 누정건축이 발전하게

8) 道敎에서는 三清境을 설정하여 太清, 上清, 玉清에 9 품계를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上界, 中界, 下界의 3층구조로 인식한다. 김현룡, 「신선과 국문학」, 평민사, 1979, 36쪽

9) 우리나라의 문헌에 시기적으로 처음 나오는 기록은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十八 實聖尼師今」에 나온다. 12년(413년)에 狼山(慶州)에 구름이 樓閣같이 보이고 향기가 성하여 오랫동안 없어지지않아 왕이 이는 필시 하늘에서 仙靈이 내려와서 노는 것이니(仙靈降遊), 그곳은 福地일것이며 그곳의 나무를 베지못하도록 금하였다.

법에 따른다.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81, 10-12쪽

6) 文體別로 記, 詩, 論, 狀, 上樞文등 총 54 종류로 나누어 선집하였다.

7) 外的 刺戟과 經驗에 의해 誘發되며 관찰자 마음속에 의 내부 과정을 거쳐 생겨난 意味, 象徵, 情緒의 합축된 모습으로 想念(thoughts)에서 나아가 心像(images)으로 형성되며 이는 客觀性을 가진 主觀的 참이 될 수도 있다.

된 간접적 이유로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속에서 樓亭記에 나타나는 그 지식층의 정신사상과 누정관을 그 기문의 작자를 위주로 하여 각 기문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는가 찾아보고자 한다.

동문선에서의 樓亭記는 대부분 高麗 中期 이후의 記文을 選定했는데 편집한 儒學者들이 儒學의 입장에서 記를 선별했고, 고려때 漢文에 능통한 문장가는 대부분 유학자들이므로 그들에 의해 쓰여졌으리라 여겨진다. 또 佛徒의 요청(사찰의 누정인 경우)에 의해 유명한 유학자들이 사찰의 樓亭記를 쓴 경우도 보인다.

樓亭記의 서술은 대개 敍事體와 議論體로 쓰여졌는데, 서사체는 먼저 언제 누가 어디에 어떤 동기로 누정을 지었으며(歷史), 작자하고는 어떤 관계로 기의 요청을 받았고(因緣), 그 누정의 형승(地形과 勝景)과 누정의 外觀 및 制度는 어떠한가를 서술한 다음 命名한 理由와 意味를 논하고, 누정의 정당성과 함께 公役의 顛末과 機能, 公共性을 논하는 형식을 취해 비교적 건축계획적 사고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비해 의론체는 유교의 德目에 중심을 두어 누정의 名義之說, 効用性, 建立의 功德등을 논함에 그쳐 서사체보다는 비건축적 경향을 보여 준다.

또 作者의 주관적인 사상과 생각에 따라 서술되었기 때문에 일반성을 잃을 수도 있겠으나 樓亭記를 요청한 사람이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상과 자연관을 문답하여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 점이나 요청자가 기문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한 경우는 보이지 않아 그 건축주나 작자의 사상과 생각이 거시적으로는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다.

다음 표 1은 분석하고자 하는 樓亭記文의 作者와 樓亭의 年代이다.

그 당시 대표적 儒學者의 한사람인 李仁老(1152-1220, 號는 雙明齋, 海左七賢의 一人)는 神仙思想을 도교 그 자체가 아닌 道家的 儒敎로 받아들이고, 누정 또한 인공적으로 원림을 조성하여 구성한 누정보다는 그대로의 자연속의 누정과 신선적 삶이 존재하는 戶外生活이 바로 神仙이며 신선의 삶의 상징적 거주와 그 염원으로 누정의 필요가치를 인식하고 있어 일종의 종교건축의 성격도 없지 않다. 이는 신선사상이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이 속세를 떠나면 때로는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에서 부터 출발하는 친근한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¹¹⁾ 또 唐의 韓愈같은 은둔생활을 동경하여 친구 접대 및

표 1. 樓亭記의 作者와 樓亭名

作者 (-)는 生存期間	樓亭名 ()는 建立年代나 記文作成 年代
李仁老(1152-1220)	雙明齋, 公州東亭, 太師公娛賓亭, 月燈寺竹樓
李奎報(1168-1241)	太齋, 四輪亭(1199), 晉康候茅亭(1207), 崔承制十字閣(1209), 又大樓(1210년대), 桂陽草亭(1219), 冷泉亭(1221), 凌波亭(1223이후)
釋無畏(충렬1275-충숙1339때 僧)	孤石亭, 庵居日月(1338)
安震(?-1360)	涵碧樓(1330쯤)
安軸(1287-1348)	翠雲亭(1326), 境浦臺(1326)
李齊賢(1287-1367)	雲錦樓(1337)
李穀(1298-1351)	心遠樓, 懷古亭(1349), 淸風亭(1349)
李達衷(?-1385)	觀風樓(1367)
李穡(1328-1396)	此君樓(1365), 靈光新樓(1365), 風詠亭(1361이후), 風月樓(1371), 枕流亭, 林亭, 六友亭, 雙溪樓(1370), 谷州公館新樓, 永慕亭, 水原府客舍池亭, 淸香亭(1378), 石犀亭, 六益亭, 望海樓
李崇仁(1349-1392)	秋興亭, 星州 夢松亭(1375)
李詹(1345-1405)	野望亭, 樂民亭(1393)

사고를 겸한 호외적 생활을 정자라는 장소에서 찾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¹²⁾ 한편 그 시기에 社稷의 신령을 믿는 神仙思想이 관아에서의 업무로서 제사를 정자에서 지낼 정도로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관아의 부속건물로서는 누정이 갖는 기능과 성격중 行政的 對民關係의 업무의 장소로서도 누정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또 李奎報(1168-1241, 號는 白雲居士, 三酷好先生, 고려중기의 문장가)는 초기에는 성리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은 우주속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주라는 환경을 떠나서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는 自然觀과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서 마음을

洗淨하는 것이라는 心性觀¹⁴⁾¹⁵⁾, 人工이 아닌 자연 그대로가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實用的 自然觀¹⁶⁾을 표현하면서 누정의 존립의미를 신선사상과는 거리가 있는,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 삶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더우기 그는 四輪亭이라는 특이한 정자를 계획하였는데 평상같은 정자에 수레를 결합한 것으로 신체의 점유면적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설계하였다. 또 그는 “정자를 짓는데 너무 委曲하게 계산하고 바퀴를 다는 것이 옛 제도에 있는 것이냐”는 타인의 질책에 “공간의 효율을 위해서 계산했고 취미에 맞도록 한것인데 반드시 옛 것을 찾을 필요가 있는냐”라고 말하면서 누정의 역사와 구조적 종류를 정의하였는데 “옛날 나무에 깃들려 살때(巢居) 거처할 수 없으므로 비로소 기둥과 집을 세워 풍우를 막았는데, 후세에 이르러 점점 제도가 증가하여 나무판자로 쌓은 것을 臺라 하고, 欄干을 곁으로 한 것을 榭라고 하였으며, 집위에 집을 지은 것을 樓라 하고, 특 트여서 텅 비고 虛敞한 것을 亭이라 하였으니 모두 事機에 임함에 헤아리고 참작하여 맞는 것을 취한 것 뿐이다. 그렇

10) 雙明齋記에서 “오래살며 시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잘못이다. 神仙은 바람을 호흡하고 이슬을 마시고 사해팔방을 마음대로 다니기때문에-. - 늙지 않는 체구, 봉래나 영주의 세속적이 아닌 공기, 이것은 모두 자연에서 생긴 것이다. - 오래 산것들은 모두가 자연에서 생긴 것으로 인공적인 조작이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여 집 한채를 짓고 여덟사람과 매일 같이 거문고, 바둑, 시와 술로 즐겨 놀았고, - 仙風道骨은 하늘에서-. - 長生術을 쓰지 않아도-. 훨훨 날아서 세상 티끌을 하직하고, - 神仙이 노니는 - 위에서 놀다가, 학을 타고 고향에 내려와서- 세상사람에게 인사할는 지 어찌 알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

11) 人間과 처음부터 先天的으로 구별되는 神 또는 宗教가 아니라 인간도 因緣이나 修練에 따라서는 신선이 될 수 있다는 後天的 人間 中心의 宗教라는 의미이며 ‘得仙’한다는 용어가 이를 실증한다고 할 수 있다.

12) 娛賓亭記에서 “韓愈가 정원 속 깊은 숲에서- 좋은 시대를 즐긴다라고 했듯이 圓覺泉위에 조그마한 정자를 짓고- 손님이 오면 샘물에 나가 시를 읊으며 저녁에 헤어지게 될 때 손님과 친구와 함께 서로 서로 즐긴다.”라고 하였다.

13) 公州東亭記에서 “큰 州와 府에는 迎春亭과 迎客亭이 있어 立春에 東方의 陽氣가 처음 열리면 土牛와 농기구, 祭物등을 준비하여 官民이 동쪽 교외에서 社稷에 제사를 지내어 농사를 연습하고, 조세의 수납등 회계 사무를 수행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경축행사를 이 정자에서 하여야 하고 사절이 오고 갈때 영접, 전송하는 정자-, 읍에서 200步 떨어진 폐허된 옛자리에 복원하여-”라고 하였다.

14) 泰齋記에서 “제일 높은 곳에 望月臺와 快心亭이 있는데, -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므로 귀로 새우는 소리, 맑게 흐르는 물소리를 듣지 않고, 눈으로 산의 푸르름을 보지 않으면 번거롭고 막히는 마음이 생긴다. 周易의 泰卦에 있는 ‘천지가 서로 사귀어 만물이 통하고 상하가 사귀어 그 뜻이 같아진다.’라고 함은 이를 두고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15) 又大樓記에서는 “양지바른 곳에 있으면 기분이 느긋하고, 그늘진 곳에 있으면 마음이 쓸쓸하여진다. 높은 곳에 있으면 속이 시원하고 낮은 곳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여진다. 禮記 月令篇에 ‘높고 밝은 곳의 臺射에 살만하다’고 한것은 이를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16) 冷泉亭記에서는 “귀인들이 정원을 꾸밀때 괴석들을 가져다가 산을 만들고 衡山과 南岳의 기이한 모습을 본 뜬 것이 기묘하나 조물주가 일찌기 개벽하여 높은 높고 깊숙하고 기이하게 빼어난 천연 그대로의 형상만은 못하다. 바위는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하는 것이 적고 물은 사람을 운택하게 해주시 차와 술도 물의 혜택이라.”라고 하였다.

다면 정자에 바퀴를 달아서 굴러 옮기는 데에 무엇이 불가할 것인가”라고 當爲性을 이야기 한 바 혁신적이고 발명가적인 건축창조의지가 있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공간개념도 정자를 자연공간속의 장소적 의미를 지닌 건축공간으로 보지 않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가구적인 성격의 실존적 공간개념으로 보았다고 볼 수 있다. 또 바퀴를 밑에, 위에 정자로 한 것은 행하게 되면 행하고 그치게 되면 그친다는 뜻이요, 바퀴를 넷으로 한 것은 사철을, 정자를 6척으로 한것은 六氣를 나타낸다고 하고 두들보와 네기등은 임금을 도와 사방의 기둥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규보는 儒學의 處世 및 數理의 사고와 군신의 관계로 건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기문에서 그는 神仙思想과 風水圖識을 나름대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으나 간단히 서술하고 어디까지나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神仙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半信半疑하는 유학자의 哲學思考를 엿볼 수 있다. 이는 晉康侯茅亭記와 桂陽草亭記에서 확실히 나타난다.^{17) 18)}

그러나 50대에 지은 凌波亭記에서 그는 유교적 사고에 불가와 선가적 사고의 결합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은퇴후 불교에 귀의하고 마는 그를 이해하게 된다.¹⁹⁾

- 17) 晉康侯茅亭記에서 “-봉래산에 올라 사해를 바라보는 것 같다. -장차 天公과 地(地神)의 도움이 있는 것인가. 물건이 천지에서 났는데 변화시켜 조물주와 더불어 안팎이 되므로-”라고 하였다.
- 18) 桂陽草亭記에서 “이곳의 기이한 지형과 뛰어난 지세가 있어 수령된 자에게 더욱 좋다(영전되어 간다라는 뜻)라고 말한 풍수도참의 말은 마땅히 선비가 삼가야 하나 때로는 맞기도 하니 믿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 19) 凌波亭記에서 “중이 정자를 짓고 구경하며 즐기는 일이 사치에 지나지 않더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사람의 심정이 모두 靑蓮佛界나 白玉仙臺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 땅이 맑고 깨끗하면 濁惡과 熱惱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 비록 인간세상에 있더라도 진실로 땅의 맑고 깨끗함을 얻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씻을 수만 있다면 이것 또한 부처의 세계이며 神仙의 樓臺인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습

釋無畏(이름은 丁午, 충렬왕 1275-충숙왕 1339때 중)의 기문의 경우에는 실제로 불도자들도 神仙思想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행처로 암자 가까운 곳에 누정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月燈寺 竹樓竹記에서 李仁老도 主掌(주지)이 대나무로 죽루를 만들고 대나무를 부처로 비유하여 이로써 누의 주된 관망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安軸(1287-1348, 號는 謹齋, 고려말기 유학자)은 江陵府 境浦臺記에서 “朴淑이 경포대는 신라의 永郎仙人이 놀던 곳인데 정자가 없어 내가 지었는데 (1326년), 옛 정자터에 주초와 섬돌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나 신선사상의 사고는 보이지 않고 단지 유학자의 理氣論的 心性觀으로 본 경관의 아름다움만 이야기하고 있어 누정관의 변화를 볼 수 있다.²¹⁾

또 李穀(1298-1351, 號는 稼亭, 유학자 李穡의 父)도 唯心論的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유학자의 누정관이 신선사상보다는 관찰자와 자연과의 합

성이 이루어 진다면 부처나 神仙의 경계를 밟는 일에도 또한 시초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놀면 마음이 푸른 난새(鸞)를 멩에하고 白鶴을 타고 앉아서 우주의 바깥에서 떠도는 것 같을 것이다. 백운선대가 무엇 그리 대단하다고 말할 것이 있겠는가. 유람하는 자도 그러할것이니 靑蓮佛界와 더불어 이웃이 되었을 것이다. 아 나도 늙었으니 다음에 은퇴하면 복건과 명아주 지팡이 차림으로- 호수와 산속에 靈이 있거든 잠깐 기다려다오”라고 하였다.

- 20) 孤石亭記에서 “철원 남쪽 만여보 거리에 神仙의 구역이 있는데-山人(仙) 萬行의 무리(선인이 되려고 수행하는 사람?)와 함께-”라고 하고 庵居日月記에서는 凌虛臺를 쌓고 招隱亭을 지었는데 “-봉래산과 화악에 오르기가 무엇이 어려우랴-, 하늘이 -산수를 나에게 주어 위로하도록-, 범을 타고 용을-”라고 하였다.
- 21) 境浦臺記에서 “대개 천하의 물건이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이치가 있으니-. 유력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보고 흥미를 붙이고 이로 인해 즐거움을 삼나니 이것이 누대와 정사가 지어진 까닭이다. 대개 형상의 기이한 것은 현저한 데 있어서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것이요 이치의 묘한 것은 음미한 데 있어서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공자가 어진자는 산을 슬기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다.

일을 추구하는 유학자의 심성관으로 후자로 갈수록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

또 李達夷(?-1385, 號는 霽亭, 유학자)도 全州 觀風樓記(1367)에서 정자를 樓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건물구조를 나라와 인간으로 비유하여 공간의 크고 넓음을 인간의 도량의 현창함과 활달함, 기둥과 주춧돌의 단단함과 완전함을 인재를 잘 쓰는 것, 단청의 윤색함을 인간덕화로 나타내고 있는데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주의적 사고와 唯心論的 思考에서 자연을 보려는 경향이 보인다.

李穡(1328-1396, 號는 牧隱, 유학자)은 인간의 환경적응과 행락등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唯心論的 理氣論(氣一元論)의 관점²³⁾²⁴⁾과 性理學의 陰陽二氣와 五行의 思考를 바탕으로 自然의 존재를 보고²⁵⁾²⁶⁾ 누정에서의 吟風弄月에서의 行樂을 인

간의 實用主義的 當爲性으로 합리화²⁷⁾하고 하고 있다.

그의 李崇仁(1349-1392, 號는 陶隱, 유학자)도 秋興亭記²⁸⁾, 夢松樓記²⁹⁾등에서 唯心論的 理氣論으로 자연을 보고 천지의 운행이 사시에 따라 자연의 변화가 경치로 나타나니 그 속에서 인간이 즐거움을 찾는다는 적극적인 누정관과 함께 즐거움은 혼자만이 해서는 안되고 모두 함께 즐겨야 한다는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으로 高麗 中·後期의 樓亭記를 작자 중심으로 樓亭記에 나타난 정신사상적 배경과 누정관을 보면 표 2와 같이 중기때의 지식층³⁰⁾들은 신선사상과 신령사상을 심상에 두고 도가적 호외생활과 불가적 수행처로서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신선같이 또는 부처같은 최고의 경지를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이의 실천으로 자연이나 경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演繹的 認識空間으로 여긴 반면 고려훈기 원, 명에 유학한 유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들어 온 이후의 지식층³¹⁾은 신선이나 종교적 信心을 배제하고 성리학적인 理氣論과 心性論, 자연관과 실천윤리를 심상에

22) 新作心遠樓記에서 “比丘 向이 기문을 요청하고 「인생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타고 나는데 五行이 서로 소용되나 四時로 쓰이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높은데 올라서 마음과 정신을 펴니, 이것은 보통 인정으로서 이치가 그런 것이다.」고 말했으나 一地僻心遠이라—마음은 하나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을 보느냐의 非觀心論이라는 것이 있으니—이 누에 오르는 자가 경치와 마음이 서로 융합하여—”라고 하였다.

23) 靈光新樓記에서 建立者 申展子가 “樓居란 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화락하게 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美觀란을 위한 것이 아니며 使者의 접대로서 잠깐동안의 즐거움을 얻고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에 동의하고 있다.

24) 風詠亭記에서는 “사시의 기운이 천지사이에 유행하여 즐겁고 덥고 따뜻하고 서늘함이 같지 않는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道가 있다.”라고 하였다.

25) 風月樓記에서는 “비록 道가 大虛에 있어 본래 형상은 없으나 능히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氣가 그렇게 한다. 이로써 기가 크면 하늘과 땅이 되고 밝으면 해와 달이 되고 흠어지면 바람, 비, 서리, 이슬이 되고 솟으면 산악이 되며 흐르면 강과 내가 된다.—하늘과 사람은 간격이 없어서 감응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26) 六益亭記에서는 “그 가운데 살면서 寒暑의 움직임으로 時物의 변화를 보고, 느낌에 따라 마음에 응하여 시와 노래를 읊어 무형의 형체속으로 들어가고, —사시의 경치가 같지 않고 즐거움도 무궁하다.”라고 말한다.

27) 枕流亭記에서도 명명의 이유에서 건립자 염홍방이 “물의 성이란 맑은 것으로 어둡고 흐린 마음이 비로소 맑고 밝아지며 어지러운 마음이 비로소 안정되어—만물이 번식하는 것이 모두 물의 뜻이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李穡 또한 “천지사이에 물이 커서 땅이 물위에 있기 때문에 대체 형체와 빛깔이 있는 것은 천지사이에 물을 버제한 썸이니 인간도 마찬가지다.—물과 사람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였다.

28) 秋興亭記에서는 “천지의 운행은 무궁하고 사계절의 경치는 같지 않아 우리의 즐거움도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중 가을보다 이 정자에서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29) 星州 夢松亭記에서는 “즐거움이란 사람 스스로 즐겨와 해야 하고, —만물이 모두 자기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物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다. 우러러 보고 굽어보는데 마음은 여유가 있고 기쁘다.”라고 하였다.

30) 李仁老, 李奎報, 釋無畏등이 대표적이다.

31) 安震, 安軸, 李齊賢, 李穀, 李達夷, 李穡, 李崇仁, 李詹등이 대표적이다.

표 2. 時代別 樓亭 性格

時代	思想	自我觀	空間性格	社會性	生活
高麗中期	神仙思想	自我=神의 實現	演繹的	神仙의 模倣	個人的 戶外生活
麗末鮮初	性理學	自我 洗性	歸納的	詩會·交際	交際中心 完全戶外生活
朝鮮	性理學	修己實踐·隱遁	歸納的	詩會·交際	半生活空間化

두고 누정을 바라보았기때문에 단지 자연이나 경치 등 대상을 보고 그것이 관찰자에게 어떠한 심상을 유발하는가의 과정과 그 심상은 관찰자에게 어떤 心性을 주는가라는 人間中心의 歸納的 認識空間으로 보았다. 다만 이규보는 이 양자 모두를 시대의 逆으로 거쳐가면서 양면적으로 인식한 인물로 특히 전년에는 異質的인 정자를 직접 계획하여 정자개념을 현실적 삶에서의 가구적 편익시설로 생각할 정도로 실용적 사고를 가졌었던 고려 때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누정관은 여러 樓亭記를 통해 표출된 자자의 정신사상에서 그들의 누정관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정관의 변화를 보면 고려 중기의 누정관은 신선사상에 입각한 신의 개념에서의 자아의 이상적 최고선을 추구한 반면 고려말에는 성리학적 사고가 일반화되면서 신의 개념에서 자아의 마음에 기준을 둔 성리학적 누정관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이는 누정명명의 이유를 논하는 명의지설을 보면 고려때에는 故事, 風流韻事, 周易 등 사물에 대한 存在論的 인식의 경향이 경관에 대한 미적 인식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인로와 이규보의 경관묘사를 보면 외관의 형상과 내재된 속성 등 그 존재성을 규명하는 의론을 함하여 상물의 완성을 피했다고 할 수 있어 중기의 누정관을 알 수 있다. 즉 이 누정관을 공간인식으로 치환하면 누정공간을 자연이나 경관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연역적 인식공간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名義를 주로 性理學的 理氣論과 心性論, 自然觀과 實踐倫理에서 찾으려 하고 있어 자연이나 경관 등의 대상이 관찰자에게 어떤 심상을 주고 그 심상은 관찰자에게 어떤 심성을 주는가라는 人間中心의 歸納的 認識空間으로 받아들여 조선까지 이어 지는 것이다.

3. 交流要素 및 心像

그 시기의 지식층들은 어떤 사상이나 정서(신선사상, 유가적 사상, 불교적 사상들과 은둔생활, 휴식 등 여유생활)의 실현의지로서 樓亭에서 여러 행위를 하였으나 공간적 주된 행위는 賞景遊興이었다. 그들은 감각을 통한 대상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심상을 시나 토론등으로 표현하면서 자아를 즐기고 느끼기 위해 심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였으며 그러한 樓亭에서의 戶外生活를 最高善으로 여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류요소와 심상요소는 樓亭建築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실마리이자 창구가 된다. 심상의 원천이 되는 교류요소(communication elements)란 관찰자와 여러 대상과의 심상의 교류에서 자아에게 의미를 부여케하는 원인 제공의 요소들이며 심상의 요소(image elements)란 그런 자연대상과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장소성의 의미와 건축자체도 그러한 일부분으로 부여되는 어떤 心像(이미지)으로 이는 관찰자가 인식하는 樓亭建築이 갖는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여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분명해진다. 즉 실존적 공간감을 가진 관찰자가 자연이나 모든 대상을 인지하여 다시 관찰자에게 심상으로 오기 위해서는 누정의 장소적 위치 즉 자아를 찾는 구심점이자 관망의 구심점으로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문선의 여러 樓亭記文에서 그들은 교류와 심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李達叟는 全州觀風樓記에서 “이 다락에 오르는 자가 능히 나로 부터 물건에 미치고 물건으로 부터 내게 이르러 大和를 포함하여 中道에 얻음이 있으면-”하고 있다. 安軸도 臨瀛公館墨竹屏記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운데에만 있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으면-나와 접촉한 다음에야-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귀, 눈, 입, 코 등속인데-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넓

한다고 까지하고 있다. 멀고 가까움은 경관의 관망대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에 따라 형성되는 현상이 경관에 변화를 주므로 시간대에 따라 관망대상도 변하고 있어 시각적 공간영역도 변하는 時空間的이고 感覺的인 認識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時空間的 이미지는 地理的 自然環境과 연관하여 自然美의 自覺에서 필연적으로 孕胎되는 것으로 神仙思想과 儒敎思想과 관련하여 자연으로 回歸를 뜻하는 것이며 이 자연은 항상 存在하는 完成體로서가 아닌 運行秩序가 있는 有機體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운행질서속에 자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積極的인 장소가 時空間的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位置가 된다.

또 형태적 인식이미지는 자연경관에서는 형태 이미지보다는 時空間的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더 있으므로 樓亭自體에 대한 건축구조 요소의 인식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경관요소로서는 내부지향적이므로 의미를 크게 두고 있지 않다. 다만 天海地方³²⁾의 형태이미지로 고정되었던 그들은 건축자체도 이 원칙에 의거한 造形意識을 지녀 지붕이 둥근 것을 日傘같이 半空에 높이 나르는 듯하다고 한다든가 처마나 도리등을 나르다 또는 춤춘다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둥이나 주춧돌등을 단단함, 안전함,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형태이미지는 땅은 단단하고 하늘은 가볍다라는 이미지로 일치시키고 있다.

4. 計劃觀

심상에서 계획관으로 전환은 從屬的인 관계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는 지식층의 구체적인 계획관은 심상뿐만 아니라 관료적 덕치의 입장에서 본 것이 크고 실천논리의 하나인 풍수사상도 영향을 준 관계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으리

라 여겨진다. 그러나 심상의 인식이미지는 입지 계획에 있어서 그 장소성을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구조계획에도 결정요인이 된다.

먼저 立地計劃觀을 정리하면 李仁老의 公州東亭記³³⁾의 경우는 입지의 선정의 설명용어로 보아 풍수사상의 영향을 알 수 있으며 迎春亭에서 社稷의 祭祀를 지낸 것을 볼 때 관용의 누정의 건립은 邑城과의 위치로 볼 때 해가 뜨는 동쪽에 건립하는 것이 입지적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李奎報의 太齋記에서는 승지가 궁궐 바로 옆에 태재를 卜築하였고 태재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망월대와 쾌심정을 지었는데 대궐을 바라보고자 하는 충심에서 였다고 그 당위성을 말하고 개경 36洞의 경치가 모조리 다 들어 온다고 하였는데 감시와 조망을 위해 입지를 높은 곳에 정했음을 알 수 있다. 凌波亭記에서는 띠풀로 지붕을 올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물위에 있는 정자를 명승이 되게 하는 까닭이라고 밝히고 있어 호수 속에 입지를 정하는 형태도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安軸은 翠雲亭記에서 樓亭의 입지가 높고 현출한데 이지 않으면 그윽하고 깊은데 있다고 말하고 關東의 樓亭이 모두 높고 광활한데 있어 풍도와 안개에 靄중이 나서 송림속에 지었다고 그 위상적 입지관을 高低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規模計劃에 대해 정리하면 公州東亭은 누정 뿐만 아니라 부속의 지원공간을 갖고 있어 官用 樓亭은 복합건물의 형태로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四輪亭記에서는 사륜정의 사용처를 장소적인

32) 李奎報도 四輪亭을 계획할 때 말하기를 “天圓地方이므로, 一만물이 모나고 둥근 데 들어가는 것은 모두 형상과 그릇에 응한다.”고 말하고 있다. (曰天圓地方, 人所皆知, 一, 欲論萬物之入於方圓, 皆應形器也)

33) “巽(동남)에서 龍山이 일고, 坤(서남)에서는 熊水가 감싸니 神靈하고 精氣가 胚胎一, 옛 영춘정자리에, 一직접 감독하고 계획하여(前指後劃)一, 지면의 넓이를 참작하여 지대가 동편으로 치우치므로 거기에 寶樓를 세우고 남향으로 몸체를 높이 짓고 서편과 남편에 行랑체를 14칸지었으며 更衣室과 食之所와 겨울용의 煖室(온돌), 여름용의 涼廳(마루방)까지 마련하였다. 또 축대와 매질(樓墜:기단)을 하고 단청을 올렸다. 그 규모는 넓지도 좁지도 않으며 누추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평평한 마당과 층층의 계단과 행랑과 보도들 위에서는 禮를 행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하였다.

의미로 말하는데 동산에서 햇볕을 피하여 그늘로 가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하고 말이나 소가 아니고 사람이 끈다고 한정한 것은 정자의 이동거리와 영역이 가까운 거리임을 짐작케 한다. 또 6인의 신체스케일을 모듈로 바둑판의 井間³⁴⁾ 같이 나누어 사방 6尺 36平方尺의 적정규모를 計劃³⁵⁾하였다고 하며 桂陽草亭記에서는 한 칸마루에 서까래 10개, 이영으로 지붕을 덮고 규모는 8척에 지나지 않고 앉을 자리도 8명이 겨우 앉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冷泉亭記에는 10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 시대 누정의 평면규모를 짐작케 한다.

構造計劃을 보면 四輪亭記에서는 들보가 들, 기둥 넷, 대나무연목등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해체와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단순한 구조와 가벼운 경량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雲錦樓記에서 李齊賢은 權侯가 못가에 樓를 지었는데 길이를 두배로 높게하였으며(倍尋以爲崇), 三丈의 폭(參丈以爲袤)으로 하고 礎는 안바쳤지만(不礎而楹) 기둥은 썩지않게 하고(取不朽), 기와는 안이었으나(不瓦而茨) 초지붕은 새지 않게(取不漏), 통나무를 깎지 않았으나 적당하며(桶不斲不豐而不麤), 벽은 색칠하지 않았으나 화려하거나 누추하지 않았다고(墜不縵不華而不陋) 말하는데 樓下柱가 긴 이층구조임을 알 수 있으나 주초가 없이 어떤 방법으로 목재의 부패를 방지했는가 알 수 없다. 또 부재는 각주보다는 원주를, 와가보다는 초가를 많이 사용³⁶⁾하고 단청등의 장식을 피했음을 알 수 있다.

環境要素의 측면에서 그 계획관을 보면 雲錦樓記에서 민가 가까이 樓가 있는 관계로 민가

의 사람들의 생활행태를 관찰하는 것도 교류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길가 사람들은 못이 있는 것만 알고 자기들을 보고 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뭇잎에 의한 빛의 散亂이나 그로 인한 樓안과 밖의 빛의 밝기에 의한 스크린효과를 이용하여 觀望을 즐기고 있어 造景에 의한 시선차단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淸風亭記에는 白和父가 “시원하고 높고 조강하며 읍의 승경인 옛 터에-, 읍에서 가까운 곳에 네기둥집을 지었는데 아침저녁 햇빛이 동쪽 서쪽에 비치어 촌이 병되게 여기므로 양옆에 퇴를 달고 남쪽 추녀를 씌들어 각각 五尺씩 하고 북쪽도 그렇게 하여 조금 넓이고 깊이었다.”고 말하는데 경관의 조망을 우선하고 다음에 햇빛의 영향을 고려하는 계획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州觀風樓는 더운달에 관사가 낮고 습하여 불볕과 습기를 피하기 어려운데 小亭이 아주 좁고 막히어 정자를 樓로 시원하고 널찍하게 바꾸었다고 하는데(易亭而樓之可乎, 一登而覽之廓如也) 樓와 亭을 나름대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亭을 樓로 바꾼 예는 谷州公館新樓에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누정관은 星州夢松亭記³⁷⁾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교류대상이 가장 유리한 곳에 조망을 우선으로 하여 배치하고 그 구조계획도 조망을 범위를 넓힌다는 원칙에서 계획됨을 알 수 있으며 단청이나 다른 장식은 검소함을 들어 삼가했음을 알 수 있다.

5. 結論

이상 東文選의 樓亭記文에서 본 고려 중, 후기 누정건축의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역사성을 가진 누정건축의 正體性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적 고찰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대인 특히 누정기의 작자나 건축주의 정신사

37) 李崇仁은 “누의 제도란 댓마루와 서까래를 높게하여 그 眺望을 넓히고, 단청의 장식을 소박하게 하여 검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4) “尺而方如碁之方罫”라고 말하고 “罫線道間方井也”라고注를 달았다.

35) 李奎報는 企劃段階의 計劃을 謨劃이나 劃換라는 용어를 쓰고, 設計段階를 設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予始劃謨, 一旦失其謨劃, 一於是始設其計)

36) 朴容淑氏는 음양오행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산수화이며 종교화라고 말하고 거기에 나오는 누정은 거처하는 신선이 와가일 경우는 달님, 초가는 해님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朴容淑, 「神話體系로 본 韓國美術論」, 一志社, 1978, 91쪽

상과 누정관, 계획관등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본 고찰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누정건축은 신선사상의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산물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선사상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속에서의 여유있는 신선의 행위의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속에는 예배대상의 종교공간은 아니더라도 인간의 속된 마음을 정갈하게 하려는 超越의 神聖空間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둘째 사상적 배경과 누정관은 신선, 선령사상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였으나 사찰에서도 修禪所로서만 아니라 손님접대의 교제공간의 장소로서 필요가치를 가졌으며 民에 의한 누정은 유학자의 성리학적 사고와 자연관이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후기로 갈수록 개인적 호의공간에서 지식층의 교제공간으로 정립되어 간다.

세째 누정의 주된 인간행태적 기능은 遊興賞景에 있으며 그들의 정신적 심상은 自我의 洗淨의 실천이며 그 구체적 실천방식이 자연 경관의 상경이다. 그러한 상경의 장소성을 갖는 건축공간적 이미지는 時空間的 이미지와 형태적 이미지로 대별되는데 時空間的 이미지는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등의 位相의 定位로 나타나며 형태적 이미지는 건축물 자체의 상징적 언어의 표현과 우주의

관념적 형태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네째 계획요인으로 보면 경관의 시각범위와 대상, 그리고 풍수사상이 기후적 요소와 지형적 요인, 지리적 요인, 역사성과 함께 상호보완적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입지와 구조계획은 시각범위를 최대한 넓히는데 일차적 원칙을 정하고 기후적 요소는 다음으로 가는 순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 시대의 누정건축은 상류층사회에서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실존적인 견지에서 자아의 심성을 조절하는 장소로서, 개인에게는 호의생활을 하는 別墅로서, 그 사회로서는 일종의 교제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관의 누정은 공무와 관장의 개인공간으로 필요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배경이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누정건축의 인간행태의 공통적인 기능은 遊興賞景에서 출발하므로 유교로서 정신 배경이 일치가 되는 조선시대에도 누정건축의 공간은 관찰자가 보고자 한 시각적 자연환경에 어떤 의미와 장소적 특성이 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그 자연환경과 건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인의 다음 연구 과제라 여겨 진다.

참고문헌

- 徐居正, 1473, 『東文選』(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民族文化推進會 國譯(1976), 京仁文化史
- 張德順, 1981, 『李奎報作品集』, 螢雪出版社
- 朴煥圭, 1988, 『韓國의 樓亭考』, 湖南文化研究所
- 金東洙, 1985, 『全南地方 樓亭 調査 報告』(1), 湖南文化研究所
- , 1986, 『全南地方 樓亭 調査 報告』(2), 湖南文化研究所
- 李容範, 1989, 『光州 無等山 近邊의 樓亭建築에 관한 研究』, 『東新專門大學 論文集』
- 朴益秀, 1990, 『韓國 亭子建築의 類型 分類에 관한 研究』, 『湖南大學 論文集』
- 李明仲, 1110, 『營造法式』, 國土開發研究院譯, 1984
- 計成, 1631, 『園冶』, 藝耕出版社, 1993
- 金銀美, 1991, 『朝鮮初期 樓亭記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멀치아 엘리아데, 1983, 「聖과 俗 - 宗教의 本質-」, 李東夏譯, 學民社
1982, 「샤아머니즘」, 文相熙譯, 三省出版社
1979, 「宇宙와 歷史 - 永遠回歸의 神話-」, 鄭鎮弘譯, 現代思想社
- 朴晟義, 1974, 「韓國文學背景研究(上, 下)」, 宣明文化史
- 朴炳采, 1974, 「高麗歌謠의 語釋研究」, 宣明文化史
- 任東權, 1982, 「韓國民俗學論文」, 集文社
- 申采浩, 1971, 「朝鮮上古史(上, 下)」, 三星美術文化財團
- 南晚星, 1975, 「老子道德經」, 乙酉文化史
- 鄭瞳旻, 1986, 「韓國의 庭園」, 民音社
- 金富軾, 1145, 「三國史記(上, 下)」, 金鐘權譯, 大洋書籍, 1982
- 一然, 1270年代, 「三國遺事」, 李丙燾譯, 三省出版社, 1979
- 김현룡, 1979, 「神仙과 國文學」, 平民社
- 朴容淑, 1978, 「神話體系로 본 韓國美術論」, 一志社

A Study on the Roo-Jung Architecture from Dong-Mun-Seon in the middle and latter Era of Koryo Dynasty

Lee, Yong Bum

(Dongshin Junior College, Assistant Professor)

Cheon, Deuk You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im, Young Bai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total conspectus of Roo-Jong(RJ) Architecture in the middle and latter era of Koryo Dynast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e review of old literature, the Roo-Jung description of Dong-Mun-Sun, which had compiled in the Ninth year of Seung-Jong (AD 1478) by confucian scholar.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ain currents of thought having a great influence on the RJ are thought of Mountain God(or Sin Sun, which is dwelling in mountain) or Taoist, thought of Lao-tzu and Chuang-tzu. They had required the RJ Architecture to pursuit the life of God. In this existence value meaning, the RJ Architecture is the semi-sacred & profane space. In the being aspect, RJ is the transcendental architecture.

2) The way of life of in the RJ had strongly turned from the personal space, mainly mind control place, into the friendship-society space, pastime place.

3) The RJ had located after the images that is what should be. The images were formed on the ground of natural landscape elements, communication elements. And these elements were indicated on one's visual, auditorial sensation with oneself.

4) In planning aspect, the scope of visual, Pungsu and history were aided with the factors of climate, topography and geography. Specially in location and fabric planning, they had regarded more important the objects and scope of visual than the climate factor.